

강진 '녹차 테마파크' 좌초 위기

업체 "문화재·환경보전법 제약...투자금 돌려달라"

郡 "문화재청에 형상 변경 협조 요청중" 설득 나서

강진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차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녹차테마파크 추진 주체인 합진산업이 군과 군의회에 투자금 회수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합진산업은 '투자금 회수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당초 군이 제시한 투자조건과 다르게 문화재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제약으로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만큼 군이 사업부지를 재매수하든지 제 3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합진산업이 투자한 금액은 군유립과 사유립 매입비로 57억원, 이자 및 부대비용 14억원 등 7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진산업은 대구면 일대에 웨딩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군유립과 사유지 464만㎡ 등을 매입했다.

녹차테마파크에는 100만㎡에 이르는 계단식 녹차·매실단지를 비롯해 가공공장, 수목원과 식물원, 음식점, 위락·숙박시설 등이 2012년까지 조성될 계

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대구면 용운리 일대에서 수십 개의 가마터가 산재한 국가사적지(68호)가 확인돼 발굴조사와 문화재 형상변경 등을 위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사업부지 중 350여만㎡가 임목과 군락이 매우 약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군은 문화재 보호와 관련 형상변경 등을 통해 최대 165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업체를 설득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자체의 권한 밖이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강진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 우호적인 민관 협상변경 등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업체측에도 사업 지속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용아 박용철 시인
詩 세계 재조명'

광산구 3일 학술포럼

한국 현대 서정시의 개척자인 용아(龍兒) 박용철(1904~1938) 시인을 재조명하는 학술포럼이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용아, 박용철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박용철 시인이 현대문학 발전에 끼친 영향과 업적을 재조명, 현장 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문별란 조선대 명예교수와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시와 삶, 작품세계를 조명하며 손광은 전남대 명예교수, 전원법 광주교대 교수, 경철 광주 불교대학원장, 김종오 조선대 초빙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광산=기밀원기자 wtke@



이정섭 담양군수(오른쪽)가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을 찾은 고객에게 담양산 멜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에 친환경 농축산물 직판장 개장

담양군 전남 지자체 중 처음

담양군이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에 친환경 농축산물 직판장을 열었다.

담양군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파이낸스빌딩 1층 상가에서 이정섭 담양군수와 김효석 국회의원, 양대수 담양군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농축산물 직판장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문을 연 직판장은 316㎡ 규모로 11억원이 투입됐으며 한우와 멜론, 토마토, 딸기, 쌀 등 '대숲맑은' 브랜드 농축산물과 대통술, 죽염 뒤장, 고추장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직판장에는 담양농협·축협 직원 3명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게 된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세계 농식품시장 조사 하러 갑니다"

화순군, 美·日·유럽에 공무원 3명 파견

화순군이 세계 농식품 시장에 대한 자료조사와 정보 수집을 위해 군청 공무원들을 장기간 해외에 파견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한 화순군은 경쟁력 있는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하기 위해 업종별로 농식품 기관과 협력해 왔다.

또 현지 국가의 농산물 가격 등에 관한 수입동향이나 관세나 유통체계, 주요 소비 시장 행태, 수출입에 필요한 정보 습득 요령, 식생활 문화 등도 파악하게 된다.

화순군은 외국에 능통하거나 현지 경쟁력이 있는 직원들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자리(일본)·김자선(미국)·배상국

(독일)씨 등 3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파악한 농산물 자료를 도대로 현지 심층 조사를 통해 유망한 수출 농식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 현지 국가의 농산물 가격 등에 관한 수입동향이나 관세나 유통체계, 주요 소비 시장 행태, 수출입에 필요한 정보 습득 요령, 식생활 문화 등도 파악하게 된다.

화순군은 외국에 능통하거나 현지 경쟁력이 있는 직원들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자리(일본)·김자선(미국)·배상국



'거문도 뱃노래' 시연

'거문도·백도 은빛 바다축제'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여수시 삼면면 거문도 일원에서 개최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개막식에서 주민들이 거문도 뱃노래를 시연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벼 병충해 확산... 작황 부진 우려

잦은 비에 고온 현상 겹쳐 줄무늬잎마름병·키다리병 극성

가을철 벼 수확을 앞둔 '농도' 전남에서 병충해가 곳곳에서 발생해 작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최근 해남군과 진도군을 중심으로 벼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 869㏊의 경작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습도가 낮고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병원균을 물기는 애벌구의 번식 속도가 빨라져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영광 대마산단 본격화

내달 승인 신청...1,580억원 투입

자동차·반도체 거점단지로 조성

영광군 지방산업단지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조성된다.

영광군은 대마면 송죽·남산리 일대에 조성되는 대마 산단지에 자동차, 반도체, 기계, 식료품 제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정기호 군수는 보궐선거 당시 유치를 약속했던 해외 자동차 조립회사를 염두에

리고 있다.

대마 산단은 165만㎡ 부지에 3년 동안 1천580억원 가량을 들여 민자로 개발된다.

영광군은 대마 산단이 서해안고속도, 무안국제공항, 목포신항 등 교통 인프라와 대마산단과 광주 하남산단 인근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대규모 자본유

치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영광군은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접촉에 나서고 있으며 입주 기업에는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남 지역 6개 특화산단 가운데 하나로 추진중인 영광 대마산단은 다음달 초 전남도에 지정 승인을 신청해 12월께 산단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제1기 개강 및 입학안내

① 모집 과정 : 부동산 최고 경영자과정

② 모집 인원 : 60명

③ 입학 전형 : 서류전형

④ 접수 기간 : 2008. 8. 1 ~ 9. 3

⑤ 개 강 일 : 2008. 9. 3(수) 오후 7시

⑥ 수업 기간 : 1년(2008. 9 ~ 2009. 6)

⑦ 수업 시간 : 수요일 19:00~22:00

⑧ 교육 장소 : 호남대학교 쌍촌동 캠퍼스

⑨ 원서 접수

홈페이지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경영과정

⑩ 입학 안내 : TEL : (062)381-4986, (062)370-8336

FAX : (062)370-8161

⑪ 모집 대상 : 풍미증거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김정기사, 부동산 부동산 유무역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종사자,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사원, 기관·업체의 임직원, 시장, 시장, 관리·설계 및 분양사업자, 부동산비지니스 종사자, 개발 법인 & 경비사업조합의 임직원, 부동산 재테크 회원자 기타 부동산 사업에 관심있는 개인 및 기업의 간부.

⑫ 교육 목적 : 호남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종합 시험합격자는 부동산 경매사사, 자격인증서 수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출동문회 기입자격부여

호남대학교 경매회고 전문기사장 수료자 50만원 할인

부동산 증개사 및 호남대학교 등록 10% 할인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 품질관리사

개강일 9월 6일-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 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 시험 :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대표: 성 봄 규 (영원동동우회장 16-07-28)

· 전·후보대학교 행정대학원 일원회장

·